

10월11일 가산조합장 선거

심재호·원종호 양자 대결 전망



심재호

원종호

오는 10월 11일 실시되는 가산농협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인 심재호 후보와 가산면 체육회장인 원종호 후보간 대결로 승부로 가려질 전망이다. 가산농협조합장은 가산과 내촌지역 조합원 2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11일 선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심재호 조합장은 1941년 가산면 마산리에서 태어나 가산초와 포천중학교를 졸업한 후 포천고를 중퇴했다.

심 후보의 주요 경력은 ▶(현) 가산농협조합장 ▶건국대 경영대학원 수료 ▶농협근무 11년, 이사 8년, 감사 3년 역임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현) 가산초 축구부 후원회장 등이다.

또 심 후보의 공약사항은 ▶총체적 경영평가 절감으로 조합원 복지지원 확대 ▶농협 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한 정교지구 간이지소 신설운영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단체 작목반 적극지원 ▶사심없는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농협 구현 등이다.

이에 비해 원종호 후보는 가산면 우금리 출신으로 가산초등학교와 경북중과 포천중고를 거쳐 경북대 경영과를 졸업했다.

원 후보의 주요 경력은 ▶가산농협 이사 ▶가산 포도작목회 회장 및 가산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가산농민후계자(농협경영인) ▶우금2리 이장 ▶가산면 개발자문위원 등이다.

또 원 후보의 공약사항은 ▶일일 조합장 제도 신설로 투명한 농협경영 및 조합원 이익창출 ▶고정자산 투자 최소화 및 조합원 필요사업 적극 투자 ▶조합원 부채를 장기 저리자금 전환 ▶각 작목반(포도, 수도작, 채소)의 정기모임을 토대로 필요사항 적극지원 ▶농협 잘못으로 인한 민원 발생사항 보상 실시 등이다.

심재호 후보는 출마동기에 대해 "실무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4년동안 오직 농협 발전과 조합원 실익증대에 주력했으며, 농협발전이 바로 농민 조합원 발전이라는 신념 아래 온갖 내실경영으로 농협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농촌경제 회복과 산재돼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민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원종호 후보는 출마동기에 대해 농협은 조합원이 만든 단체로서 조합원 대우 및 처우개선에 미약한 부분들이 많고 우선적으로 주인인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고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에도 조합원을 배려하는 성향이 있고 농업에 마지막 자존심인 농협이 조합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의 농업은 쓰러진다는 것을 알기에 미래의 조합원들을 위해 앞날을 준비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하여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을 만들기 위하여 출마했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화전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승진훈련장 확대 일방적 철거통보 반발 시위 예정

승진훈련장 확장과 관련, 이동면 잠입3리 23가구 70여명의 주민들은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동면이장협의회와 함께 승진훈련장 입구에서 오는 10월11일 집회를 갖기로 했다.

승진훈련장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규)는 “이동면 잠입3리 주민 23가구 70여명은 6.25한국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이곳에 정착한 화전민들인데 올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는 공문만 보내왔다”고 밝히고 “현재까지도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은 역대 정부로부터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주택개량과 담장 개량 등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도로포장까지 실시했는데, 갑작스러운 철거통보에 주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 주택이 국방부 부지에 건축되어 보상금은 노후화된 건물보상에 불과하다”고 확실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승규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십 년을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훈련으로 인한 소음을 비롯한 각종 피해에도 주민들은 불평한번 안하고 훈련에 지장을 한번 준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훈련장을 확장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50여년 동안 화전민으로 살아 왔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못한다”면서 “건물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건물이라고 해 봤자 판자집

에 불과해, 보상금을 가지고 도심지에 나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부대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급기관 관계자들은 현지방문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급기관 몇 차례에 나왔을 뿐, 이주민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로 채소값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에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보상이 들어간 금융기관에서 먼저 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삶의 터전 마련은 커녕 노숙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한국인의恨 ‘길’로 승화

포천아시아미술제, 10월 23일까지 작가 116명 작품 선보여

아시아 16개국 116명의 작가들이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상감체널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PAAF 2005)가 포천반월아트홀에서 10월 23일까지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미술제의 주제인 ‘길(Road/Route)’은 6.25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기나긴 역정에 묻혀있는 애환과 슬픔을 예술로 승화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가슴속에 각인된 상처를 보듬는다는 취지에서 정해졌다.

포천아시아미술제는 작품 영역에 따라 크게 ‘포트폴리오 1, 2, 3, 4’로 구분돼 진행된다.

‘포트폴리오 1’은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꾸며지고 ‘포트폴리오 2’는 퍼포먼스, ‘포트폴리오 3’은 상감체널 비디오 작품으로 구성된다.

미술제 주제인 ‘길’과 관련된 영화 상영으로 기획된 ‘포트폴리오 4’에서는 인생(장예모 감독), 라스트라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 삼포 가는 길(이만희 감독), 길소뜸(임권택 감독), 길(배창호 감독)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제 기간 중에는 어린 시절 빛 바랜 사진을 통해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추억의 사진 공모전’과 포천반월아트홀 외부에 2천150매의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개막 이틀째인 지난 24일 포천반월아트홀 광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사진은 퍼포먼스 참가작가인 문정규 교수의 작품.

깃발로 뒤덮은 길미술제, 젊은 작가들의 회화, 조각, 공예 작품들을 판매하는 예술시장(Nanjang Art Market) 등 대중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대행사들도 여럿 마련됐다.

한편 미술제 개막식이 아트홀 야외공연장에서 마임그룹 ‘광대세상’의 공연과 청동색으로 전신을 분장한 행위예술가들의 퍼포먼스, 일본 행위예술 작가 다쓰미 오리모토의 ‘빵 인간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진 가운데 지난 23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이 밖에도 행위예술가인 군산대학교 이건용 교수의 ‘백묵 드로잉 퍼포먼스’와 오상욱 작가의 ‘라이트 개막 점등식’, ‘외길’을 주제로 한 김백기와 한영애의 퍼포먼스, 건물 벽에 조명을 투사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김안식의 ‘물의 피아노’ 공연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社 告

불우이웃돕기 창구

본지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참여해 희망하는 시민이나 재경포천시민 등 총합 시민들은 직접 성금을 본지에 접수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자의이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본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29일 현재 35개 학교 179명에게 1천79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9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성금을 기탁하신 고마운 분들과 직접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은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것은 서로의 고마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금을 불우이웃돕기 통장에 계좌입금하신 분들을 아래 문외자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품을 접수하고자 하는 분들도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고마운 분들과 지금은 비록 어려워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키워 나가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포천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성금 및 물품 접수내역

- 김중현 자문위원장(자동이체) 200,000원
- 고남석 제일사우나 대표 470,000원
- 강수동 삼우석재 회장 1,000,000원
- 선단초등학교 어머니회 장선숙 회장등 회원일동 500,000원
- 대광기업 권상구 대표 20,000원
- 박병구 고은종합전기(주) 대리 20,000원
- 포천시 예비군지휘관 친목회 300,000원
- 서금자(자동이체) 20,000원
- 고남석 제일사우나 대표 430,000원
- 흑돈황우 50,000원
- 김중현 조사위원장(자동이체) 200,000원

▶▶ 성금 및 물품 전달내역

- 창수초등학교 1학년 임성이 10만원
- 창수초등학교 2학년 이재희 10만원
- 창수초등학교 4학년 최유림 10만원
- 창수초등학교 5학년 최다혜 10만원
- 창수초등학교 6학년 조민목 10만원
- 신북초등학교 1학년 장미르 10만원
- 신북초등학교 2학년 이현주 10만원
- 신북초등학교 3학년 박하나 10만원
- 신북초등학교 4학년 오하진 10만원
- 신북초등학교 6학년 장미희 10만원
- 지현초등학교 1학년 김민준 10만원
- 지현초등학교 2학년 진재인 10만원
- 지현초등학교 3학년 김해림 10만원
- 지현초등학교 3학년 장승열 10만원
- 지현초등학교 5학년 임성민 10만원
- 장용산 포천시 소흘읍 주공3단지 옥매트 1점

불우이웃돕기 문의 : 031-542-1507

계좌 : 농협 585-01-015241(주)한국정보, 포천신문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창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안전한 전기사용은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 변압기 절연유 실험

“전기안전은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특급 전기점검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전기점검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보장



대표이사 안병호

전기신규신청과 전기 신·증설 공사 및
각종 대관업무 상담은 당사로 문의하세요



▶▶ 변압기 부하 점검